

축산업계

소식

종계업 229, 부화업 240개 업체 등록·허가 —89. 12월말 농림수산부 집계—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축산업 및 종축업 등록·허가업체 통계현황에 의하면, 89년12월말 축산업 등록·허가업체수는 산란계업 등록업체가 113개 업체, 육계업 등록업체 268개소, 종계업 등록업체 229개업체, 부화업 허가업체240개업체로 나타났다.

등록된 종계수수는 산란계 553,166수, 육계 1,790,177수이며, 허가된 부화업체의 부화기는 총 2,138대로 1회 입란능력은 총 38,491,000개이다. 등록·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등록·허가

양계업

| | | '89. 6. | '80. 12 |
|------|-----|---------|---------|
| 산란계업 | 업체수 | 116 개소 | 113 |
| | 사육수 | 5,037천수 | 4,799 |
| 육계업 | 업체수 | 295 | 268 |
| | 사육수 | 2,704 | 2,467 |

양돈업

| | | '89. 6 | '89. 12 |
|----|-----|----------|---------|
| 허가 | 업체수 | 34 개소 | 31 |
| | 모돈수 | 23,240 두 | 18,802 |
| 등록 | 업체수 | 1,054 | 346 |
| | 모돈수 | 97,772 | 53,461 |

* '89. 12 등록수는 '90. 1. 19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모돈 100 두 이상업체임.

○종축업 등록·허가

| | | '89. 6 | '89. 12 |
|-----|-----|-----------|---------|
| 종계업 | 업체수 | 229 개소 | 230 |
| | 사육수 | 2,639 천수 | 2,343 |
| 부화업 | 업체수 | 244 개소 | 240 |
| | 능력 | 39,801 천개 | 38,491 |
| 종돈업 | 업체수 | 155 개소 | 145 |
| | 사육수 | 22,734 두 | 20,450 |

CP그룹 국내진출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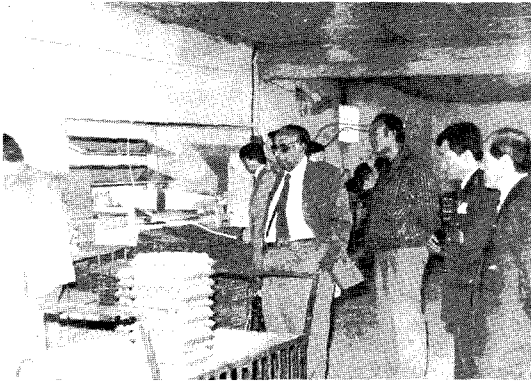
—육계계열화사업이 목적—

세계적인 육계계열화업체인 CP그룹의 국내 진출이 좌절되었다.

중국계 태국인이 경영하는 CP그룹은 개인명의로 위장하여 한국정부에 배합사료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배합사료 제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임을 근거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CP그룹은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배합사료와 육계계열화사업이 주력업종으로 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 일대의 육계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CP그룹이 한국에 진출하려는 속셈은 육계계열화사업으로 한국에서 닭고기를 생산하여 세계최대의 닭고기시장인 일본 수출을 겨냥하려했으며 수입개방시 냉동육 수입을 고려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리남 국회의장 홍일농장 방문
—수리남에 기술지원 요청—



수리남 국회의장 일행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소계 홍일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양계산업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우리나라경상도의 3배정도 면적으로 인구 40만명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들 일행은 양계 후진국인 수리남에 양계기술 지도자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한국 양계시장 개방압력 거론
—Feed Stuffs지 보도

미국사료곡물 전문지인 Feed Stuffs지는 미국의 닭고기관련업계가 한국에 닭고기시장 개방압력을 가하면 한국의 닭고기시장은 가까운 시일내에 개방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양계단체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된 이번 내용은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미국이 큰 성과를 거두자 이에 자극을 받은 양계분야도 한국의 닭고기 시장 개발을 요구하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몇몇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 수입개방압력의 신호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극동농업협동조합 협력위원회 설립
—한국, 일본, 대만 농협—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농협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동농업협동조합 협력위원회」를 지난4일 설립하였다.

이번 설립된 위원회는 회원기관간의 정보 및 정보의 교환과 경제적,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기능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조치를 취한다. △회원기관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협력한다. △조합업무면에서 특히 신용, 공제, 무역, 관광분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관심사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합동조사연구에 협력한다. △국제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극동농협협력위원회의 초대의장은 한국의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임기 1년씩 3개국 농협중앙회장이 교대로 의장을 맡기로 했다.

한국양육업협동조합 창립

가칭 한국양육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17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안 및 사업계획, 수지에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김찬규씨가 초대 조합장에 이형수, 한건희씨가 감사에, 한의석, 김연명, 표광, 이중해, 이영, 이경섭, 양한승, 이호식, 이강원씨가 각각 이사에 선출되었다.